

# 신간회 경서지회(京西支會)와 지역정치

김영진\*

## 〈차 례〉

1. 머리말
2. 신간회 경서지회 설립과 지회 명칭 문제
3. 신간회 경서지회의 지역적 기반과洞里 기반 청년회
4. 신간회 경서지회와 지역문제
5. 맺음말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신간회 경서지회 설립을 통해서 식민지 사회운동이 도시공간의 지역적 이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는 식민지 체제에 대한 전면 부정과 인정이라는 두 개의 이항 대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이자, 신간회의 지회 활동이 어떻게 지역적 이해관계와 상호작용하는지 분석하려는 것이다. 경서지회의 관할 구역인 구용산부터 서강 사이의 공간은 경성의 도심이나 일본인 거주지와 구별되는 독립된 생활권으로, 사회적·경제적 격차와 민족적 차별이 교차하는 공간이었다. 경서지회는 구용산-서강 지역의洞里 기반 청년회를 기반으로 설립되었으며, '사회 기반 시설'의 차별적 배치와 관련된 식민지 민중들의 '당면이익' 투쟁에 개입하였다. 식민지 당국이 무시하거나 무관심한 것들을 사회적 의제로 부각해서 쟁점화하는 방식으로 식민지의 모순을 드러냈다. 이처럼 신간회 경서지회는 계급적·민족적 모순들이 만든 식민지 민중의 일상 공간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지역정치의 주체로 참여하였다.

[주제어] 신간회, 경서지회, 지역정치, 개량주의, 당면이익, 용강면, 용산, 마포, 서강

\*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연구교수

## 1. 머리말

이 글은 신간회 경서지회(京西支會) 설립을 통해서 일제하 사회운동의 조직 변화가 도시공간의 지역적 이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해명하고자 한다. 이는 지역의 이해관계를 매개로 작동하는 지역정치에 신간회 지회가 어떻게 개입하는지를 살펴보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지역정치란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지역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련의 정치적 과정을 의미한다. 여기서 정치적 과정이란, 식민지 지배체제를 부정하는 형태의 대립이 아니라 식민지 체제 내부의 합법공간을 매개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일체를 말한다. 진정이나 항의, 주민대회 등을 모두 포괄한다.<sup>1)</sup>

그동안 신간회 지회 연구는 개별 지회의 불균일한 지역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간회 운동의 ‘비타협성’을 지회 차원에서 재확인하는 경향이 강했다. 신간회 운동의 ‘비타협성’을 강조하는 해석은 신간회 운동의 다양한 형태 중에서 민족적 대립만을 일면적으로 부각하기 쉽다. 신간회 지회 연구의 선구자인 이균영은 지회의 모든 정책과 활동을 ‘사회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으로 분류했다. 사회적인 것은 계몽운동, 생활수호운동 및 생존권수호운동을 의미했고, 정치적인 것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요구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인 것’이나 ‘정치적인 것’이나 일제의 통치정책을 철폐하거나 수정하는 운동이라고 규정했다.<sup>2)</sup> 즉, 이균영은 지회 활동의 다양한 활동을 포착했으면서도 결과적으로 체제를 바꾸는 ‘비타협성’을 신간회의 지회 활동의 핵심으로 설명했다. 그렇지만 신간회의 ‘비타협성’은 지속적으로 그 실체가 의심받아 왔다. 신간회 결성 과정에서 ‘자치론’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근본적인 비판부터, ‘비타협성’이라는 개념이 가진 모호함을 지적한 연구, 그리고 신간회 결성의 중요한 한 축인 조선공산당의 주류가 합법공간에서 개량적 운동을 추구했다는 주장과 그것의 현실적 내용 등에 대한 분

1) 염복규, 『일제하 도시지역정치의 구도와 양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7,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1; 한상규, 『일제시기 지역주민의 집합행동과 ‘공공성’』, 『역사문제연구』 31, 역사문제연구소, 2014.

2) 이균영, 『신간회 연구』, 역사비평사, 1993, 287~294쪽.

석이 제출되었다.<sup>3)</sup> 그뿐만이 아니라 ‘비타협성’으로 포괄할 수 없는 지회 활동의 다층적 측면을 보여주는 신간회 지회 연구들도 꾸준히 축적되었다.<sup>4)</sup>

이러한 연구 성과에 근거하여 본 논문은 식민지 체제에 대한 전면 부정과 인정이라는 이항 대립적 역사해석에서 벗어나 식민지 정치운동을 해석해 보 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충분히 부각되지 않았던 신간회 운동의 ‘개량적’ 성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개량적 운동이란, 식민지 지배체제를 전면 부정하는 형태의 직접행동이 아니라 체제 내적인 개입을 통한 합법 운동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신간회가 식민지 조선 민중의 삶의 조건으로서의 일상을 정치화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갔음을 알 수 있다. 일상의 ‘당면이익’을 위한 투쟁은 개량적 요구이지만, 식민지 당국이 무시하거나 무관심한 것들을 사회적 의제로 부각해서 쟁점화하는 행위이다. 지배체제 자체를 위협하지 않을지라도 식민지 민중의 ‘당면이익’은 식민지 현실에서 파생된 계급적·민족적·성적 모순들과 중첩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신간회의 개량적 운동이란, 식민지 민중의 일상 문제를 매개로 지역정치에 개입하는 합법적 정치운동을 의미하는 것이다.<sup>5)</sup>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신간회 경서지회와 지역 공간의 관계에 주목하여, 신간회의 지회 활동이 어떻게 지역적 이해관계와 상호작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신간회 경서지회는 인접한 경성지회(京城支會)와 구별되

- 3) 한상구, 『1926~28년 사회주의 세력의 운동론과 신간회』, 『한국사론』 32,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4; 김영진, 『초창기 신간회 경성지회 주도세력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윤덕영, 『신간회 창립과 합법적 정치운동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0; 김영진, 『정우회선언의 방법과 내용』, 『사림』 58, 수선사학회, 2016; 윤희정, 『신간회의 ‘민족동권’ 운동과 식민지 체제의 균열적 성격』, 『한국학연구』 64,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2.
- 4) 조성운, 『일제하 수원지역의 신간회운동』, 『역사와실학』 15·16, 실학사상연구, 2000; 이윤갑, 『일제하 경상북도 지역의 신간회 지회운동』, 『동방학지』 12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4; 조성운, 『일제하 광주지역의 신간회운동』, 『사학연구』 100, 한국사학회, 2010; 김영진, 『신간회 경성지회 주도세력과 ‘비타협’ 논쟁』, 『서울과역사』 78, 서울역사편찬원, 2011; 심상훈, 『일제강점기 민족협동전선운동과 신간회 지회 운동-1920년대 경북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동아인문학』 57, 동아인문학회, 2021; 윤희정, 『신간회 순천지회 연구』, 『호남학』 70,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21; 한규무, 『일제강점기 나주협동상회의 설립과 운영』, 『역사학연구』 84, 호남사학회, 2021; 허중, 『일제강점기 금산지역 청년운동의 양상과 성격』, 『역사와담론』 103, 호서사학회, 2022.
- 5) ‘당면이익’을 위한 투쟁은 신간회 설립 이전에도 존재하던 언술이며, 실천방식이었다. 그렇지만 <정우회 선언> 이후 ‘당면이익’을 위한 투쟁에 정치성이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이전과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주의자들의 운동 방법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는 특정한 물적 조건을 가진 공간에 근거한다. 그리고 사회운동도 이러한 공간의 분리를 따라 작동한다. 이처럼 분리된 공간을 여기서는 ‘생활권(生活圈)’<sup>6)</sup>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생활권은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성되는 경계이며, 물리적인 경계인 동시에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유대감을 공유하는 경계이다. 생활권의 경계는 공통의 ‘사회 기반 시설’(infrastructure)을 매개로 형성되는 측면이 강하다. 교통 시설 같은 사회 기반 시설은 지역민의 결집을 유도하는 조건이 되기도 하고, 지역민의 거주공간이 확장되면 이에 따라 부족한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지역적 요구가 표출되기도 한다. 이처럼 생활권과 사회 기반 시설은 상호적 영향을 주고받으며 지역적 이해관계를 만든다.

지역적 이해관계에 근거한 정서적 유대감은 지역적 연대감을 만드는 근거가 되지만, 지역적 격차를 인식하게 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따라서 생활권은 사회운동의 물적 조건인 동시에, 사회운동의 결과로 변화가능한 대상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간회 경서지회는 하나의 사회적·지역적 이해를 대변하는 단체이자, 새롭게 공간을 구성하는 주체가 된다. 이처럼 사회운동을 지역성 혹은 공간과 결합하여 분석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특히 사회단체의 변화를 공간의 재구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sup>7)</sup> 그리고 사회운동과 ‘지역성’이 상호적으로 작동하는 관계를 분석한 연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sup>8)</sup>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우선 신간회 경서지회의 설립과 정에서 불거진 지회 명칭 문제를 통해 신간회 경서지회의 설립 근거가 되는 지역적 정체성의 외연과 내포를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신간회 경서지회 설립을 주도한 동리(洞里) 기반 청년회들이 근거한 지역적 특징을 분석하고,

6) 여기서 말하는 생활권은 ‘근린’(neighborhood)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계획’의 측면보다는 ‘형성’의 측면을 강조하고자 생활권이라는 표현을 선택했다.

7) 이기훈, 『1920년대 전남지방의 청년단체와 청년운동-사회정치적 공간의 구성과 변화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26, 역사문제연구소, 2011.

8) 김명섭, 『일제의 남한산성 침탈과 주민들의 저항 사례연구』, 『동양학』 59,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15; 최보민, 『1920년대 개성의 사회운동과 비밀결사 개성공산당-사회운동과 지역성의 관계를 중심으로』, 『역사연구』 37, 역사학연구소, 2019; 엄복규, 『1920년대 말 ‘신도시’ 신의주의 차지인 운동과 지역사회』, 『역사문화연구』 76,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20; 양지혜, 『일제하 개발의 충격과 농촌사회의 재편』, 『역사연구』 40, 역사학연구소, 2021.

마지막으로 이러한 지역적 이해관계에 기반한 신간회 경서지회의 안건 분석을 통해 지역정치에 개입하는 양상을 분석할 것이다.

## 2. 신간회 경서지회 설립과 지회 명칭 문제

### 1) 신간회 경서지회 설립과정과 관할 구역

신간회 경서지회 설립은 경성부 서쪽의 한강 연강(沿江) 주변 청년단체들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1928년 1월 14일 마포청년회(麻浦青年會), 서강청년회(西江青年會), 아현청년회(阿峴青年會), 일신청년회(日新青年會)의 발기로 연강사회단체연합 신년간담회가 열렸다. 신년간담회에는 14개 단체의 65명이 모였는데, 신간회 지회를 최대한 빠르게 조직하기 위해 ‘신간연강지회발기촉성위원회’를 조직하였다.<sup>9)</sup> 1월 19일 신간연강지회발기촉성위원회는 명칭을 ‘경서지회’로 변경했다. 한강 연강 주변 사회단체의 합의로 지회 건설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지회 건설은 조직 명칭을 둘러싸고 다른 견해가 제출되었다. 1월 29일 서강청년회관에서는 ‘신간회고양서부지회 설립준비위원회’가 열렸다. 이 모임에서는 지회 명칭을 ‘고양서부지회(高陽西部支會)’로 하기로 하고, 그 대상지역도 고양군(高陽郡)을 동서(東西)로 나눴을 때 서쪽 일부와 한강 연안의 마포 도화동(桃花洞), 원동(元町), 암근정(岩根町), 산수정(山手町), 대도정(大島町), 금정(錦町), 청엽정(靑葉町)으로 정했다.<sup>10)</sup> 지회 설립을 추진할 임시집행부까지 선정하였지만, 고양서부지회 설립은 순조롭지 못했다.

고양서부지회라는 명칭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월 10일 연강사회단체연합 다과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는 고양서부지회 명칭에 반

9) 『朝鮮日報』, 1928년 1월 18일, 『沿江社會團體 懇談會』; 『朝鮮日報』, 1928년 1월 25일, 『新幹沿江支會 促成運動』.

10) 『東亞日報』, 1928년 2월 1일, 『新幹西部支會 設立準備進行』.

대하고, 명칭 문제를 신간회 본부에 문의하기로 결정했다.<sup>11)</sup>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신간회고양서부지회 설립준비위원회의 활동이 제대로 돌아가기 어려웠다. 결과적으로 신간회 본부에서는 신간회 경서지회라는 명칭을 승인했고, 경서지회 설립을 위한 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3월 3일 마포청년회관에서 신간회경서지회 설립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고, 15명의 상무집행위원도 선출되었다. 새롭게 조직된 신간회경서지회 설립준비위원회는 고양서부지회 설립준비위원회가 일부 아현청년회원을 제외하면 다수가 사임하거나 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이고, 절차적으로 설립대회를 개최해야 할 기한도 지났다는 명분으로 독자적인 설립준비위원회를 추진했다. 본부의 의견에 따라 명칭은 경서지회로 하고, 관할 구역은 기존에 고양서부지회가 정한 곳에 서계동(西界洞)과 봉래정 4정목(蓬萊町 四丁目)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sup>12)</sup>

이러한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신간회 본부가 적극적으로 나섰다. 신간회 본부에서는 두 설립준비위원회의 대표들을 신간회 본부로 불러서 화합을 주선했다. 그 결과 두 설립준비위원회는 3월 15일 합동준비위원회를 통해 힘을 합쳤다. 합동준비위원회에서는 문제가 되었던 지회의 명칭을 경서지회로 확정했고, 상무집행위원회도 다시 선출하였다.<sup>13)</sup> 이후는 일사천리로 지회 설립이 진행되었다. 3월 21일에 공덕리에배당에서 백여 명의 회원과 수백 명의 방청객이 참가한 가운데 신간회 경서지회 설립대회가 열렸다. 신간회 경서지회 회장에는 서세충(徐世忠)이 선출되었다.<sup>14)</sup>

설립과정에서 지회 명칭을 둘러싸고 불협화음이 있었지만, 한강 연강 지역의 사회단체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존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지역의 사회단체들은 이전부터 공동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었다. 1925년 ‘을축년(乙丑年) 대홍수’를 겪은 연강의 사회단체들은 1926년 여름을 앞두고 ‘연강각단체연합수

11) 『東亞日報』, 1928년 1월 26일, 『沿江新幹支會』; 『朝鮮日報』, 1928년 2월 17일, 『沿江社會團體 別協議會創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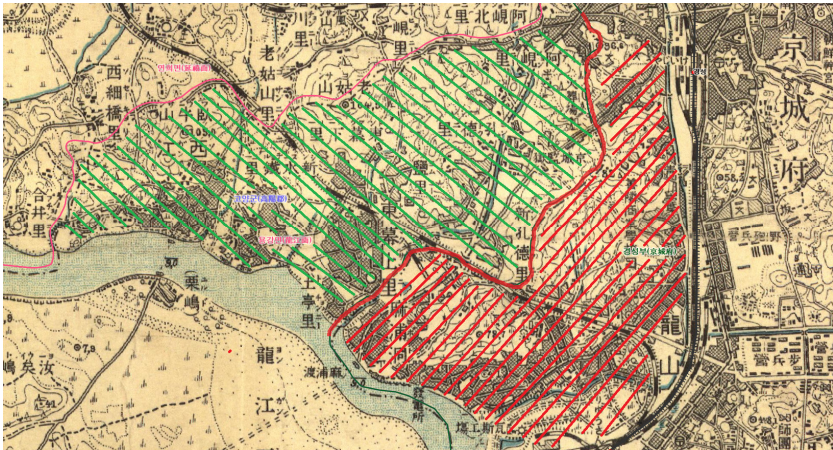
12) 『東亞日報』, 1928년 3월 6일, 『新幹京西支會 設立준비중』.

13) 『朝鮮日報』, 1928년 3월 19일, 『名稱으로問題인 新幹京西會解決』.

14) 『朝鮮日報』, 1928년 3월 23일, 『新幹京西設立盛況』; 『東亞日報』, 1928년 3월 28일, 『新幹京西支會 이십일일설립』.

재구호단(沿江各團體聯合水災救護團)을 조직하였다. 이 구호단에는 경서지회로 결합한 연강 지역 청년회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었다.<sup>15)</sup> 또한 1926년 일본 나가사키에서 개최된 아세아민족대회 반대 결의문에 함께 서명한 청년회와도 겹친다.<sup>16)</sup> 앞에서 언급했던 신년간담회도 그렇고, 청년회를 중심으로 한 연강 지역의 사회단체들은 결속력이 강한 편이었다. 특히 1926년 1월에 한강 연안의 사회단체 주요 인물들이 모여서 결성한 신인동맹(新人同盟)은 연강 지역 사회 운동단체들에 대한 지도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며<sup>17)</sup>, 이러한 신인동맹의 영향력은 연강 지역 사회단체들의 결속을 위한 기반으로 작동하였다.

그렇다면 왜 경서지회 설립과정에서 명칭 문제가 불거진 것일까? 이에 대한 대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경서지회의 관할 지역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그림1] 경서지회 구역 (오른쪽 빛금 : 경성부 포함 지역, 왼쪽 빛금 : 고양군 용강면 지역)

- \* 출전 :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 GIS서비스 제공 지도
- \* 비고 : 지도의 일부를 활용했으며, 면 경계를 따라 구역을 표시함.

15) 『東亞日報』, 1926년 7월 22일, 『沿江各團體 水災救護團』. ‘연강각단체연합수재구호단’에는 新人同盟, 東亞青年會, 龍寅青年會, 龍乙青年會, 錦町青年會, 光活青年會, 新孔青年會, 新興青年會, 阿峴青年會, 志友青年會, 桃花洞俱樂部, 麻浦青年會, 東友青年會, 東工青年會, 義勇青年會, 日新青年會, 西江青年會가 참여했다. 이 단체들 가운데 지우청년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는 해당 인물들의 신간회 경서지회 참여가 확인된다.

16) 『朝鮮日報』, 1926년 8월 3일, 『亞民大會反對』.

17) 『東亞日報』, 1927년 1월 31일, 『巡廻探訪 (213)』.

[그림1]은 신간회 경서지회가 담당하는 지역을 표시한 것이다. 경서지회는 오른쪽 빗금으로 표시된 경성부 마포 및 용산역 서쪽 지역과 왼쪽 빗금으로 표시된 경기도 고양군 용강면(龍江面) 지역을 포괄하였다. 행정구역으로만 보자면, 경서지회는 경성부 부내 지역과 부외의 경기도 지역이라는 이질적 공간이 결합된 형태로 보인다.

행정구역을 구분하는 경계가 지역의 생활권과 일치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경서지회 관할 구역은 1911년 경성부를 5부 8면으로 조정할 때 용강면으로 조정된 지역이었다. 그리고 1914년 조선총독부가 부군면 통폐합을 전개하면서 용산 지역과 동대문, 서대문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성외 지역 대부분을 경기도 고양군에 편입시켰다. 그 결과 마포를 포함한 용산 지역은 경성부에 남았고, 왼쪽 빗금으로 표시된 아현리(阿峴里), 공덕리(孔德里), 구수철리(舊水鐵里), 신수철리(新水鐵里), 동막상리(東幕上里), 동막하리(東幕下里), 토정리(土亭里) 등은 고양군 용강면이 되었다. 용강이라는 명칭은 용산과 서강의 합성어였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구역상의 구분은 생활권이 반영된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생활권의 차원에서 보자면, 용산 지역 중 ‘구용산(舊龍山)’<sup>18)</sup>과 서강 지역은 용산역을 경계로 경성부와 분리된 공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신인동맹을 중심으로 이 지역 사회단체들의 결속력이 강했던 것은 정치사상적 견해를 공유했을 뿐 아니라 공통의 생활권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수해에 대비해 조직된 ‘연강각단체연합수재구호단’의 경우에는 구호 활동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신용산(新龍山)’부터 서강까지를 7구로 나누고 각 구를 담당하는 단체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sup>19)</sup>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들이 자신들이 담당해야 할 공간적 범주를 용산에서 서강까지로 파악했고, 이를 기반으로 구호 활동의 방법을 결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존재하는 행정구역과 무관하게 경서지회의 설립

18) ‘구용산’과 ‘신용산’의 형성 및 용산 지역의 공간적 변화와 특징에 대해서는 박준형, 『용산 지역 일변인 사회의 형성과 변천(1882~1945)』, 『서울과역사』 98, 서울역사편찬원, 2018을 참조.

19) 『東亞日報』, 1926년 7월 22일, 『沿江各團體 水災救護團』. 구호 활동 지역에 신용산이 포함된 것은 1926년 당시 동아청년회가 이촌동에 있었기 때문이다.



기반이 이들의 생활권에 기반해 있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또한 명칭에 대한 갈등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을 하나로 합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확인해준다.

## 2) 지회 명칭과 지역정체성

신간회 경서지회가 하나의 생활권에 기반하여 설립되었다는 것은 확인되었지만, 여전히 고양서부지회와 경서지회라는 명칭 대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남아 있다. 이것을 고양서부지회 설립준비위원회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아현청년회 일부와 경서지회 설립준비위원회에 참여한 다른 청년회 사이의 주도권 다툼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명칭 문제를 주도권 다툼으로만 설명하기는 불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아현청년회는 1925년 화요파가 주도한 청년단체들이 모여서 조직한 한양청년연맹(漢陽靑年聯盟)에 참여했고, 이에 반대하는 서울과 계열의 청년단체들은 1925년 연강수재구조청년단체연합상황보고회를 계기로 경성청년연합회를 결성하고 한양청년연맹과 노골적으로 대립하였다.<sup>20)</sup> 1925년 당시 광활청년회(光活靑年會)와 아현청년회는 한양청년연맹에 가입한 ‘화요파’ 계열의 청년회였고, 금정청년회(錦町靑年會)와 동우청년회(東友靑年會)의 전신인 동우구락부는 ‘서울파’가 주도한 경성청년회연합회기성회(京城靑年會聯合會期成會)에 참여했다.<sup>21)</sup>

이러한 조직적 갈등의 여지가 존재하지만, 1926년 하반기 ‘통일’ 조선공산당의 등장으로 기존의 ‘화요파’ 대 ‘서울파’의 대립 구도는 깨졌다.<sup>22)</sup> 1927년 하반기부터 조선공산당 내부에서 ‘엠엘파’ 대 ‘서상파’의 대립이 격화되었지만<sup>23)</sup>, 신간회 경서지회가 설립되는 1928년 3월 시점에 ‘엠엘파’와 ‘서상파’

20) 안건호·박혜란, 『1920년대 중후반 청년운동과 조선청년총동맹』, 『한국근현대청년운동사』, 풀빛, 103~104쪽.

21) 『朝鮮日報』, 1925년 8월 6일, 『漢陽靑年聯盟組織』; 『朝鮮日報』, 1925년 8월 11일, 『創立된京靑聯合』.

22) 박종린, 『1920년대 ‘통일’ 조선공산당의 결성과정』, 『한국사연구』 102, 한국사연구회, 1998.

의 대립이 이 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고양서부지회 설립준비위원회에 참여했고, 경서지회 설립대회에서 간부 및 대표회원으로 선출된 차금봉(車今奉)의 존재는 이 지역 사회운동의 향방이 ‘엠엘파’에 가까웠음을 짐작케 할 뿐이다.<sup>24)</sup>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1926년의 ‘연강각단체연합수재구호단’과 아세아민족대회 반대 결의문에 참여한 단체들의 면면을 보면, 연강 지역 사회단체들 사이에 이 시기에 극심한 조직적 대립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고양(高陽)’과 ‘경(京)’이라는 지역명이다. 고양의 서쪽을 지칭하는 것과 경성의 서쪽을 지칭하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진다. ‘고양’이라는 명칭을 고수한다는 것은 경성과 분리되고자 하는 주체적 인식을 강조하는 행위이다. 이와 달리 경성의 서쪽을 표방하는 것은 행정구역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지만 경성부의 일부임을 주장하는 행위이다. 경서지회의 관할 구역이 원래 경성부의 8면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이런 행위는 좀 더 의식적인 것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고양서부지회라는 명칭이 더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경성이 아니라 고양이라는 지역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맥락은 분명하지 않지만, 특기할 만한 지점이다. 즉, 신간회 지회의 명칭을 둘러싼 갈등은 신간회 지회의 정체성을 경성부에 일치시킬 것인지, 경성부와 구별되는 고양군에 둘 것인지를 둘러싼 갈등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방안 중에서 신간회 본부는 경서지회라는 명칭이 적절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경서지회라는 명칭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이다. 신간회는 경성이라는 지역 안에 지회를 추가하는 형태로 경서지회를 설립했다. 따라서 신간회 본부가 고양서부지회가 아니라 경서지회라고 결정한 것은 경서지회를 경성지회와 나란히 두고자 하는 의도된 행위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결정은 일종의 ‘경성중심주의’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23) 임경석, 『1927년 조선공산당의 분열과 그 성격』, 『사람』 61, 수선사학회, 2017.

24) 차금봉이 고양서부지회 설립준비위원회나 경서지회 설립대회에 이름이 등장하지만,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차금봉은 1928년 2월에 열린 ‘엠엘파’의 ‘제3차 당대회’를 통해 ‘2월당’의 책임비서가 되면서 경서지회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설립대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차금봉은 경서지회 간사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이러한 신간회 본부의 결정을 이 지역의 다수가 지지했다는 것을 보면, 경성의 서쪽이라는 정체성 자체가 이 지역 사람들에게 낯선 정체성이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경서지회는 경성부의 두 번째 지회가 되었다.

경성의 두 번째 지회인 경서지회와 기존 경성지회와의 관계도 간단히 살펴보자. 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경서지회의 인물들은 경성지회의 주요 간부들과 전혀 겹치지 않는다. 다만, 경서지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서세충은 경성지회의 회원이었다. 1927년 12월에 열린 신간회 경성지회 제2회 정기대회에서는 대표회원 선거 후보였지만, 투표결과 탈락했다.<sup>25)</sup> 서세충이 경서지회 회장이 된 것은 1909년 비밀조직 대동청년단(大東靑年團)에 참여하는 등 독립운동 경력이 있는 명망가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 외에 경서지회 간부들이 경성지회에 참여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지역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경성지회의 관할지는 경성 도심지와는 성격이 달랐다. 경성지회의 관할 구역인 구용산과 서강 지역은 도심 지역의 사회 기반 시설을 공유하고 있지 못했다.

이처럼 경서지회는 경성지회와 같은 ‘경’자를 사용하지만, 인적으로든 지역적으로든 경성지회와 구분되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경성지회와 구별되는 지역환경적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서지회라는 새로운 지회가 설립될 수 있었다. 이는 경서지회의 활동 또한 경성지회와 구별되는 지역적 이해관계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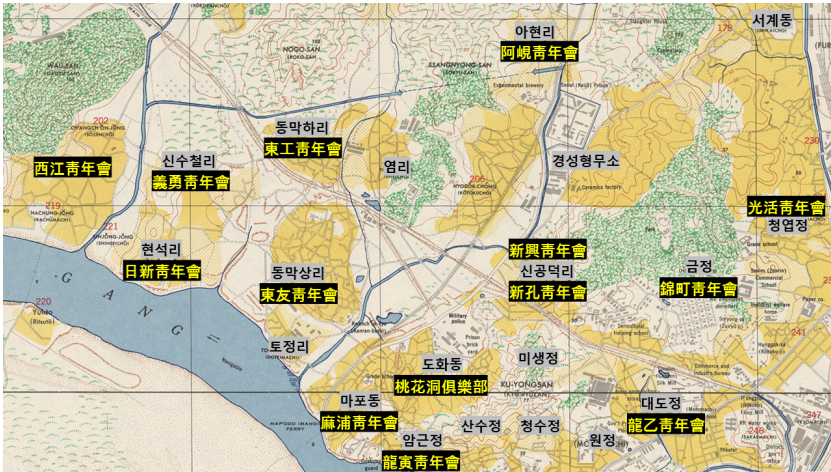
### 3. 신간회 경서지회의 지역적 기반과 洞里 기반 청년회

#### 1) 신간회 경서지회와 경성부 구용산 지역

신간회 경서지회는 구용산-서강 지역 사회단체, 특히 청년회를 중심으로 설립되었다. 1926년의 ‘연강각단체연합수재구호단’에 포함된 단체들이 그 정

25) 김영진, 「초창기 신간회 경성지회 주도세력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7, 41쪽.

도의 차이가 있었지만 신간회 경서지회에 참여했다. 이 청년회들의 활동지가 곧, 경서지회의 관할 구역이었다. [그림2]는 신간회 경서지회 관할 구역의 지명과 해당하는 지역에 기반한 청년회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그림2] 신간회 경서지회 관할 구역과 동리 기반 청년회의 분포

※ 출전 : "Kyonsgong or Seoul(Keijo), Kyonggi-do(Keiki-do), Korea", U.S. Army Map Service, 1946  
 ※ 비교 : 지도(1:12,500)의 일부를 사용했으며, 지명 및 단체명을 추가함.

우선, 경성부에 포함된 지역의 청년회로는 마포청년회, 광활청년회, 용을청년회(龍乙青年會), 금정청년회, 용인청년회(龍寅青年會), 도화동구락부(桃花洞俱樂部)가 있다. 마포청년회는 마포동에 위치하며, 박성철(朴性哲), 안응원(安應源), 최형식(崔亨植) 등 마포 지역의 청년 유지를 중심으로 회원의 수양과 친목을 목표로 결성된 단체였다. 지역사업을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1925년 1월 19일 제5회 정기총회를 통해 조직을 혁신하고, 선언과 강령을 발표했다지만 강령이 적화사상을 선전한다는 이유로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다. 이때의 집행위원장은 최형식이고, 간부로는 김영주(金榮柱), 김용봉(金容鳳), 김익배(金益培), 박성철, 안응원, 오석근(吳錫根), 장환성(張煥成)이 활동하였다. 교육사업으로 마포강습소를 운영하고, 회원은 1927년 기준 70여 명이다.<sup>26)</sup> 마포청년회의 최형식, 박성철, 김익배는 경서지회 설립총회에서 간부로 선출되었다.

광활청년회는 청업정에 근거를 둔 단체였다. 이 지역의 유지인 이순종(李順宗), 이상은(李相殷) 등을 중심으로 계급의식의 각성과 투사양성을 목표로 1924년 7월 19일에 조직되었다. 월간잡지 『광활(光活)』을 4호까지 발간했지만 간부와 잡지동인들이 1927년 조선공산당 사건으로 체포 혹은 외지로 피신하면서 정간되었다. 1927년 기준으로 회원은 대략 100명이고, 이순종, 이원익(李源益) 등이 간부를 맡고 있었다.<sup>27)</sup>

용을청년회는 용산 대도정에 근거를 둔 단체였다. 1925년 3월에 최길부(崔吉簿), 권숙범(權肅範) 등의 주도로 창립되었다. 1926년 1월 혁신총회를 열고 회장제를 위원장제로 바꾸는 동시에 강령과 규약을 새로 개정하였다. 최길부, 권숙범을 비롯하여 김상배(金相培), 박남수(朴南壽), 유성의(兪聖儀), 은재기(殷在基), 지태안(池泰晏) 등이 간부를 맡고 있었다. 그리고 용산노동학원을 설립했으나 경비문제로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1927년 기준으로 회원은 약 80여 명이다.<sup>28)</sup> 용을청년회 최길부는 경서지회 설립대회에서 임원으로 선출되었다.

용인청년회는 용산 압근정에 근거를 둔 단체였다. 원래 용인친목회였지만, 1926년 2월에 청년 유지 정대희(鄭大熙)를 중심으로 새롭게 조직되면서 명칭도 용인청년회로 바꿨다. 용인청년회는 용인강습소를 운영하며 보통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무산아동 130여 명을 야학으로 교육하고 있다. 대표간부는 정대희, 노중현(盧重賢)이었다.<sup>29)</sup> 그리고 정대희는 경서지회 설립대회에서 임원으로 선출되었다.

도화동구락부는 1920년 10월에 설립된 단체로 무산자 마을로 알려진 도화동의 공중사업 및 무산아동의 문맹퇴치를 위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도화동구락부가 운영하는 삼성학원(三聖夜學)은 도화동의 유일한 교육기관이다. 주요 간부로는 김준영(金俊英), 황철주(黃哲柱) 등이 있다.<sup>30)</sup>

26) 『東亞日報』, 1925년 1월 31일, 『麻浦青年總會』; 『東亞日報』, 1927년 2월 1일, 『巡廻探訪 (214)』.

27) 『東亞日報』, 1927년 2월 1일, 『巡廻探訪 (214)』.

28) 『朝鮮日報』, 1926년 1월 27일, 『各團體消息』; 『東亞日報』, 1927년 2월 2일, 『巡廻探訪 (215)』.

29) 『朝鮮日報』, 1926년 4월 22일, 『各團體消息』; 『東亞日報』, 1927년 2월 2일, 『巡廻探訪 (215)』.

30) 『東亞日報』, 1927년 2월 1일, 『巡廻探訪 (214)』.

구용산 지역의 청년회는 상대적으로 사회주의 성향이 강했다. 광활청년회는 “민국의 무산자여 단결하라”, “사회는 실력 있는 투사를 요구한다. 항상 투쟁하자”라는 표어를 회관 내에 붙여 두었다가 대표자들이 검속되기도 했다.<sup>31)</sup> 용을청년회도 권속범과 연결되어 있었으며, 용인청년회의 노중현은 1929년 조선혁명자동맹에 참여하고, 이후 적색노조 간부로 활동하는 인물이었다.<sup>3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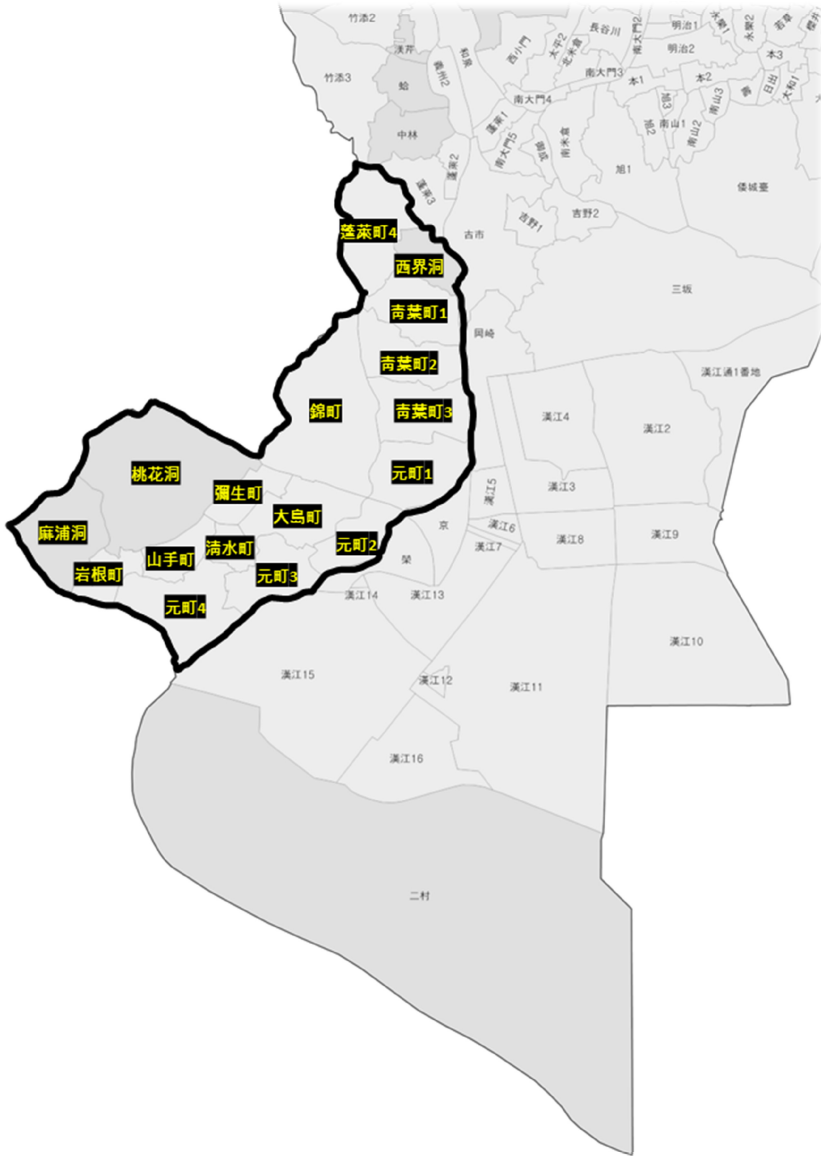
경성부에 포함된 구용산이 이처럼 청년회들의 근거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지역이 조선인 밀집지역이라는 것과 연관이 있다. 개시 이후 별도의 거류구역 설정이 없었던 용산역 서쪽의 구용산 지역은 사실상 잡거지로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 토지가옥 매매가 개별적으로 이뤄졌다. 이런 영향으로 용산역 서쪽은 일본인 인구가 많은 지역과 조선인이 밀집해 있던 지역, 특별히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는 지역이 혼재했다.<sup>33)</sup> 그렇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구용산은 조선인 밀집지역으로 변해갔다.

아래의 [표1]은 [그림3]에 표시한 경성부 내 신간회 경서지회 관할 구역의 조선인과 일본인의 인구비율을 보여준다.

31) 『京龍高秘 第1064號, 光活青年會幹部檢束ノ件』, 1926년 5월 1일, 『思想問題에 關한 調査書類』 1.

32) 강만길·성대경 엮음,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창작과비평사, 163쪽. 노중현은 盧四石이다.

33) 박준형, 『용산 지역 일본인 사회의 형성과 변천(1882~1945)』, 『서울과역사』 98, 서울역사편찬원, 2018, 282~283쪽.



[그림3] 경성부 내 신간회 경서지회 구역

※ 출처 : <1910-1936년 경성부의 행정구역>(기본도 058), 한국근대전자역사지도사업팀, 『한국근대전자역사지도』

[표1] 용산지역 조선인 일본인 인구 비율(1925)<sup>34)</sup>

洞町別	朝鮮人人口	日本人人口	朝鮮人比率
西界洞	1249	201	85.8
蓬萊町4丁目	3332	100	97.1
靑葉町1	2272	346	86.3
靑葉町2	2176	312	87.2
靑葉町3	2331	376	85.7
大島町	834	1148	41.4
錦町	2814	113	96.1
彌生町	192	443	30.1
桃花洞	2558	98	96.2
麻浦洞	2498	12	99.1
岩根町	986	1	99.9
山手町	1220	27	97.5
清水町	634	141	81.7
元町1	1067	2515	29.4
元町2	167	1623	9.2
元町3	1945	228	89.1
元町4	971	153	85.8

[표1]을 보면, 원정 1가와 2가, 그리고 대도정과 미생정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조선인의 거주 비율이 85%를 상회한다. 용산역 서쪽 지역이 전체적으로 조선인 밀집거주지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압근정에 근거한 용인청년회, 금정에 근거한 금정청년회, 청엽정에 근거한 광활청년회도 이러한 인구분포와 깊은 연관이 있다. 고양서부지회에서 경서지회로 바뀌는 과정에서 추가로 편입된 서계동과 봉래정 4정목의 경우도 조선인의 거주 비율이

34) 이준식, 『일제강점기 경성부의 공간구조 변화와 인구변동 - 1925~1935년의 민족별 거주지분리를 중심으로 -』, 『서울과역사』 69, 서울역사편찬원, 2007, 318~320쪽의 <표 5> 町洞·민족별 인구(1925)에서 해당 지역의 수치만을 뽑아서 재구성했음.



높은 지역이다. 특히 봉래정 4정목은 경서지회 관할 구역 가운데 조선인 인구의 숫자가 가장 크다. 아마도 이런 특징 때문에 경서지회의 관할 구역에 추가되었을 것이다. 용울청년회는 일본인이 조선인보다 조금 더 많이 거주하는 대도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처럼 민족별 거주지 분리가 경서지회의 지역적 근거를 만들어주었다. 물론 도시에서 민족별·인종별·성별 거주지 분리가 생기는 것은 일반적 현상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거주지 분리가 사회운동 단체의 활동 근거가 된다는 점이다.

## 2) 신간회 경서지회와 고양군 용강면 지역

다음으로 고양군 용강면 지역에 근거한 청년회를 살펴보자. 서강청년회는 용강면 서강에 근거를 둔 단체이다. 1920년 6월 강준표(姜俊杓), 양정석(梁晶錫), 최기영(崔基永) 등이 주도하여 만든 건흥구락부(建興俱樂部)의 후신이다. 건흥구락부는 지덕체(智德體) 삼육(三育)의 건전한 발육을 목표로 한 단체였지만, 1926년 1월에 강령과 규약을 개정하면서 명칭도 서강청년회로 변경했다. 서강청년회로 변경하고 나서 기존에 운영하던 무산아동야학을 더 확장하였다. 주요 간부는 강준표와 장두익(張斗益)이고, 1927년 기준 회원은 약 111명 정도이다.<sup>35)</sup> 강준표, 민준식(閔俊植), 장두익은 경서지회 설립대회에서 임원으로 선출되었다.

동우청년회는 용강면 동막상리에 위치한 단체이다. 1921년 3월 13일 이 지역 청년 유지인 김영규(金泳圭), 김장환(金章煥), 김현두(金顯斗)가 주도하여 조직한 단체이다. 동네 공중사업에 주력했고, 을축년 수해 때는 마포청년회와 협력하여 구호 활동을 통해 많은 수재민을 도왔다. 1926년 4월 내부 혁신을 단행하였고, 이때 집행위원장은 김장환, 집행위원으로는 고병수(高丙洙), 송언호(宋彦鎬) 등이 맡았다.<sup>36)</sup> 동막하리에는 이 지역 청년노동자를 중심으로 조직된 동공청년회(東工青年會)가 있었다.<sup>37)</sup> 동공청년회는 노동자

35) 『朝鮮日報』, 1926년 3월 17일, 『無産兒童夜學』; 『東亞日報』, 1927년 2월 1일, 『巡廻探訪 (214)』.

36) 『朝鮮日報』, 1925년 7월 18일, 『麻浦龍山兩方面』; 『東亞日報』, 1927년 2월 1일, 『巡廻探訪 (214)』.

중심의 청년회여서 그런지 경서지회 활동이 눈에 띄지는 않았다.

아현청년회는 용강면 아현리에 위치해 있었다. 1925년 7월 22일에 강수성(姜壽聲), 김상민(金相敏) 등의 주도로 조직되었고, 창립 즉시 한양청년연맹에 가입하여 계급투쟁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927년 기준 회원은 약 50여 명이고, 김상민, 손응수(孫應洙) 등이 간부를 맡았다.<sup>38)</sup> 아현청년회의 김철(金哲), 최등만(崔登萬), 홍일(洪溢)은 경서지회 설립대회에서 임원에 선출되었다.

일신청년회는 용강면 현석리(玄石里)에 위치해 있었다. 이 지역의 청년 유지인 서병희(徐丙熙), 이만재(李晩宰) 등의 발기로 1925년 11월에 만들어졌다. 자금 문제로 청년회 회관이 정해지지 않아서 회관 확보에 최우선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1927년 기준 회원은 43명이고, 회장은 서병희, 부회장은 이만재가 맡았다.<sup>39)</sup> 일신청년회의 박용구(朴容九)는 경서지회 설립대회에서 임원으로 선출되었다.

의용청년회(義勇青年會)는 용강면 신수철리에 위치한 단체이다. 1925년 12월 1일 창립총회를 열고, 회장에 정호석(鄭浩錫), 부회장에 정홍섭(鄭弘燮)을 선출하였다. 이때 간부는 남기선(南基善), 송익균(宋益均), 양재희(梁在熙), 윤상덕(尹相德), 이기주(李基周), 이두영(李斗泳), 정화섭(鄭和燮), 탁경호(卓慶鎬) 등이었다. 정호석이 주도한 의용청년회는 강연 및 음악회 등 문화사업을 벌이는 동시에 근창학원(謹昌學院)을 운영하고 있었다. 1927년 기준 회원은 80여 명이었다.<sup>40)</sup> 의용청년회의 정호석은 고양서부지회 설립준비위원회부터 경서지회 설립대회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신흥청년회(新興青年會)와 신공청년회(新孔青年會)는 신공덕리(新孔德里)에 위치한 단체들이다. 신흥청년회는 1923년 7월 무렵에 조직되었고, 1927년 기준 회원은 87명 정도이다. 대표간부는 양대석(梁大錫)이 맡았다. 신공

37) 『東亞日報』, 1927년 2월 2일, 『巡迴探訪 (215)』.

38) 『東亞日報』, 1927년 2월 1일, 『巡迴探訪 (214)』.

39) 『東亞日報』, 1927년 2월 1일, 『巡迴探訪 (214)』.

40) 『朝鮮日報』, 1925년 12월 4일, 『義勇青年創立會』; 『東亞日報』, 1925년 12월 4일, 『巡迴探訪 (215)』; 『東亞日報』, 1927년 2월 2일, 『義勇青年會 新水鐵里서創立』.

청년회는 1924년 7월에 창립되어, 무산이동아학과 운동 장려를 위해 활동하였다. 1925년 12월에 조직을 혁신한 이후 계급의식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927년 기준 회원은 53명이고, 이때 간부는 강흥창(姜興昌), 박준호(朴準鎬) 등이었다.<sup>41)</sup> 신흥청년회의 차구현(車九鉉)은 경서지회 설립대회에서 임원으로 선출되었다.

용강면의 청년회는 구용산의 청년회에 비해서 기독교 인물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경서지회 간부 명단에 있지만, 소속 청년회를 확인하지 못한 이재묵(李載默), 정대성(丁大成), 조석칠(趙錫七), 최누세(崔樓世)를 비롯하여, 신흥청년회의 조경모(趙景模), 서강청년회의 강준표와 이동윤(李東潤) 등도 서강의법학교(西江懿法學校) 또는 창천교회(滄川教會) 등에서 활동한 기독교인이었다.<sup>42)</sup> 그렇다고 용강면의 청년회가 기독교 계열만 있던 것은 아니다. 아현청년회, 서강청년회, 신흥청년회, 의용청년회 등은 조직 혁신 이후 사상적 경향이 강해졌고, 연강 지역 사회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끈 인물들이 포진해 있었다. 다만, 경서지회 설립대회에서 선출된 전국대회 대표회원 7명 가운데 기독교 인물이 다수를 차지했다.<sup>43)</sup>

신간회 경서지회의 또 다른 관할 구역인 용강면의 경우에도 구용산 지역과 마찬가지로 조선인의 밑집거주지라는 점은 동일했다. 이 지역은 일본인의 숫자가 극히 적기 때문에 일본인 대비 조선인의 비율을 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 오히려 조선인 인구의 집중화 현상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41) 『東亞日報』, 1927년 2월 2일, 『巡廻探訪 (215)』.

42) 『朝鮮日報』, 1926년 8월 14일, 『夏期兒童 聖經學校開催』; 『東亞日報』, 1927년 4월 17일, 『地方人事消息』; 『朝鮮日報』, 1927년 8월 11일, 『滄川教會夏講』; 마포중앙교회 홈페이지 중 <역대 장로> (<http://www.mapocmc.org/xs/history2>, 2022년 11월 23일 확인)

43) 전국대회 대표회원 가운데 천도교의 박동구(朴同九)와 조선공산당의 차금봉을 제외하면, 이동윤, 이재묵, 조경모, 최누세가 기독교 계열이었다. 정호석도 기독교인이었지만, 의용청년회를 이끌고 신인동맹 창립을 주도하는 등 사회운동에 적극적이었던 점에서 다른 기독교인들과 위치가 달랐다.

[표2] 용강면 동리의 인구 추이(1920~1930)(단위: 명)<sup>44)</sup>

면	동리	1920	1925	1930	1930-1920(5)
용강면	아현리	2,585	5,862	10,453	7,868(304.4)
	공덕리	3,415	6,784	10,888	7,473(218.8)
	산공덕리	1,166	4,381	4,381	3,215(275.7)

위의 [표2]는 용강면 3개 마을의 인구 추이를 보여준다. 이 표를 보면, 1920년부터 1930년까지 10년 동안 인구의 증가분이 1920년 대비 2~3배 정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20년대 기간 동안 용강면 아현리, 공덕리, 산공덕리에 인구가 집중되었다. 인구의 증가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이들 지역의 이해관계가 형성되게 해주는 기본조건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구의 집중은 농촌인구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는다. 아래의 [표3]은 용강면 가운데 총 호수가 많은 5개 마을의 호수별 직업 분류를 정리한 표이다. [표3]은 각 마을의 농업호수와 상공업/기타 호수를 구분하여 해당 마을이 농업 중심인지 아닌지를 보여준다.

[표3] 용강면 동리의 직업 호수표 (1926년 말)<sup>45)</sup>

면	동리	총 호수	농업호수	상공업 기타 호수	상공업 기타 호수비율(%)
용강면	공덕리	1,554	92	1,462	94.1
	아현리	1,389	71	1,318	94.9
	동막상리	818	49	769	94.0
	산공덕리	667	37	630	94.5
	동막하리	462	15	447	96.8

44) 김영근, 『일제하 경성 지역의 사회공간구조의 변화와 도시경험: 중심-주변의 지역분화를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20, 서울역사편찬원, 2003, 150쪽에서 해당 부분만 발췌 인용함.

45) <인접면리별 직업 호수표>(1926년 말), 『국역 경성도시계획조사서』, 서울역사편찬원, 2016, 55쪽에서 총 호수 상위 1~5등만 발췌 인용함.

[표3]을 통해 확인한 동막하리, 동막상리, 아현리, 공덕리, 신공덕리는 모두 상공업 및 기타 호수의 비율이 90%를 웃돈다. 이렇게 농업호수의 비율이 채 10%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용강면이 전형적인 농촌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구의 집중이 일어나고 있는 용강면 지역의 90%가 넘는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상업 및 공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면 용강면은 더 이상 농촌이 아니라 도시로 성장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완전한 도시화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지만, 용강면은 “경성과 기존 구역 사이에서 방황”<sup>46)</sup>하는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920년대 경성의 도시계획구역을 설정할 때 마포와 용강면을 포함한 계획안이 언급된 것은 이런 지역적 상황이 반영된 결과였다.<sup>47)</sup>

신간회 경서지회와 관련해서 해석한다면, 용강면은 경성과 접해 있으면서 농업지역이었던 다른 주변지역과 달리 점차 도시화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고양보다는 경성에 가까운 지역적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지역적 이해관계는 구용산-서강 지역의 사회단체들이 신간회 경서지회로 결합하여 활동하는 주요한 토대가 되었다. 신간회 경서지회에 참여한 청년회를 살펴보면 사상적 경향이 농후한 단체들도 있었지만, 지역사회에서 교육 및 문화사업을 주도하는 단체들도 있었다. 이 두 경향은 서로를 배제하지 않고 지역적 차원에서 공동활동을 진행했다. 사회주의 색채가 농후한 단체들도 지역에서 실질적인 교육사업을 운영하는 등 지역에 근거한 활동을 경시하지 않았다. 신간회 경서지회의 조직적 기반인 청년회들은 이미 해당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46) 『국역 경성도시계획조사서』, 서울역사편찬원, 2016, 55쪽.

47) 『서울도시계획사』 1, 서울역사편찬원, 2021, 235~237쪽.

## 4. 신간회 경서지회와 지역문제

### 1) 신간회 경서지회 의안과 지역문제

구용산-서강의 조선인 밀집거주지에 근거한 신간회 경서지회는 특정한 지역적 이해관계를 대변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를 통해서 지역적 이해관계에 관여했는지를 신간회 경서지회의 안건을 통해 알아보자.

아래 [표4]는 1928년 3월 21일 경서지회 설립대회에 제출된 안건과 같은 해 12월 15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2회 정기대회 안건을 비교한 것이다. 신간회는 대회와 간사회를 통해 운영되었다. 간사회가 지회의 구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간부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자리라면, 대회는 1년에 한 번씩 소속 회원이 전부 모여서 회의 활동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자리였다. 대회를 앞두고는 대회에서 논의할 안건이 준비되었다. [표4]를 보면, 안건은 ‘의안’과 ‘건의안’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이 용어는 당대에 사용되던 표현으로 지회에서 논의할 안건을 ‘의안’으로, 신간회 전국대회에 제안할 안건을 ‘건설안’으로 표현했다.

[표4] 신간회 경서지회 설립대회 및 정기대회 안건 비교

	설립대회 제출 안건 (1928.3.21.)	정기대회 제출 안건 (1928.12.11.)
의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적 차원의 문제</li> <li>● 언론출판결사집회의 완전한 자유획득 운동</li> <li>● 조선인 본위의 산업정책 확립</li> <li>● 최저임금제도 및 8시간 노동제</li> <li>● 유년노동의 철폐와 부인노동의 보호제 실시</li> <li>● 임금에 대한 민족적 차별철폐</li> <li>● 소작권 확립</li> <li>● 여자의 인신매매 및 公法·私法 차별 철폐</li> <li>● 조선 본위의 교육제 실시</li> <li>● 의무교육제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적 차원의 문제</li> <li>● 區內 민간교육협의기관 수립</li> <li>● 풍속개량선전데이(미신타파데이, 허례허식폐지데이, 봉건적 결혼폐지데이)</li> <li>● 소비조합 설치</li> <li>● 부인운동 촉성</li> <li>● 本支 회관 건축</li> <li>● 京城刑務所 및 煉瓦공장 위치 반대</li> <li>● 麻浦線 電賃운동 독려</li> <li>● 경성부 비료탱크 철폐운동 독려</li> <li>● 區內 私設 도서관 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학교에 조선어 사용 실시</li> <li>● 민간교육기관의 허가제 폐지</li> </ul> <p>■ 지역적 차원의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물산장려회 후원</li> <li>● 區內 사립학교 후원</li> <li>● 미신타파</li> <li>● 전차임금구역통일운동</li> <li>● 본회 회관 건축 촉진</li> </ul>	
건의안	<p>■ 전국적 차원의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동강령 제시의 건</li> <li>● 三總 해금 □□</li> <li>● 회관 건축의 건</li> <li>● 회보 발간의 건</li> <li>● 협동소비조합 설치의 건</li> </ul>	<p>■ 전국적 차원의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체 변경 (회장제를 위원제로, 현재 부서 중 정치문화부를 訓練部로, 特別部를 專門部로 하여 청년, 여성, 노동, 농민의 4부로 할 것, 道協議機關 설치)</li> <li>● 전민중생활동계표 작성</li> <li>● 流難民 대책 강구</li> <li>● 재외동포생활상태 조사</li> <li>● 東拓 不二 이민 반대</li> <li>● 소작권 확립</li> <li>● 8시간 노동제 및 최저임금 확립</li> <li>● 강제결혼 및 인신매매 금지</li> <li>● 일반학교 조선어 사용 실시</li> </ul>

\* 출전 : 『朝鮮日報』, 1928년 3월 24일, 『新幹京西支會 任員討論議案』: 『京龍高秘 第5929號 新幹京西支會定期總會 準備=干スル件』, 1928.12.11., 『思想問題에 關한 調査書類』 5; 『朝鮮日報』, 1928년 12월 11일, 『新幹京西 討論議案』

따라서 의안을 보면 지회가 어떤 문제를 당면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1928년 3월 설립대회 당시 의안을 그 성격에 따라 ‘전국적 차원의 문제’와 ‘지역적 차원의 문제’로 추가로 구분했다. 전국적 차원의 문제는 조선총독부의 통치방침을 바꿀어야 하거나, 법률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해결되는 안건들이다. 즉 일개 지회가 해결할 수 없는 안건을 전국적 차원의 문제로 분류했다. 이와 달리 지역적 차원의 문제는 경서지회 차원의 결정만으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안건들이다. 단체를 후원하거나, 건물을 짓는 일은 재정만 뒷받침된다면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이다. 미신타파와 같은 계몽활동은 청년회에서 많이 진행하는 사업이며, 전차구역통일운동은 지회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일이다. 전차구역통일운동 같은 경우 경서지역에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조선총독부가 아닌 경성전기주식회사와 협상을 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전국적 차원의 문제와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설립대회 당시 의안은 전국적 차원의 문제가 지역적 차원의 문제를 압도했다.

이와 달리 1928년 12월에 제출한 정기대회 안건은 그 구성이 설립대회와 완전히 달랐다. 우선, 의안에 전국적 차원의 문제가 없고 지역적 차원의 문제로만 구성되었다. 의안의 경우 회관 건설을 제외하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구내 민간교육협의기관 수립 및 사설도서관 설치는 지역의 교육사업을 후원하고 확장하기 위한 안건이다. 다음으로 풍속개량선전대, 소비조합 설치, 부인운동 촉성은 계몽적 성격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성형무소 및 연와공장(煉瓦工場) 위치 반대, 마포선(麻浦線) 전일 통일운동(電賃統一運動) 독려, 경성부 비료탱크 철폐운동 독려는 교육사업이나 계몽사업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안건이다. 이 마지막에 제시된 안건들은 지역적 이해관계와 밀접한 것들이다. 지역주민들이 일상에서 빈번하게 부딪치는 말 그대로 주민들의 당면문제들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정기대회 안건에는 전국적 차원의 문제가 의안이 아니라 건의안에 포함되었다. 전국적 차원의 문제 자체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지회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한 것이었다. 즉, 설립대회와 달리 정기대회에서는 지회의 활동이 어떠한지 하는지가 더 명확해졌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경서지회는 공동의 지역적 이해관계에 공유하는 생활권을 바탕으로 신설된 지회였다. 따라서 경성부와 구별되는 구용산-서강 지역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활동이 신간회 경서지회에 필요했다. 경서지회의 정기대회 안건은 그러한 경서지회의 역할을 잘 보여준다. 일면으로 보자면 의안이 건의안에 비해서 ‘정치성’이 열거나 탈각된 것처럼 보이지만, 지역적 이해관계를 해결하는 과정 자체가 지역주민의 결집과 사회적 의식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정치성’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sup>48)</sup> 한상구가 지적했듯이 식민지 시기 지역문제를 매개로 벌어진 다양한 집단행

48) 당면이익을 위한 투쟁 같은 개량운동에 ‘정치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정우회 선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우회 선언>은 기존부터 존재했던 당면이익 투쟁을 정치투쟁의 핵심적 방법으로 재정의했다.(김영진, 『정우회선언의 방법과 내용』, 『사립』 58, 수선사학회, 2016)



동은 체제 내적이지만, 그 과정 자체가 비정치적인 것은 아니었다.<sup>49)</sup>

실제로 식민지 당국은 건의안이 아니라 지역적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의안 자체도 위협적으로 느꼈다. 경서지회는 정기대회 안건을 확정하고 관할 용산경찰서에 1928년 12월 15일 제2회 정기대회를 열겠다고 신청했지만, 용산경찰서는 “토의사항이 불온”하다는 이유를 들어 정기대회 금지를 통보했다.<sup>50)</sup> 경찰 당국은 계몽운동 및 해당 지역의 부문 운동 및 현안 관련 안건은 허가했지만, 그 논의도 ‘정치적’이라고 판단되면 금지했다. 즉, 민족차별 철폐나 정치적 자유 확대를 요구하는 안건은 적극적으로 규제했다.<sup>51)</sup>

결국 경서지회는 해를 넘겨 1929년 1월 26일에 임시대회를 개최할 수 있었지만, 대회에서 다룬 안건은 정기대회를 준비할 때의 안건과 차이가 컸다. 의안은 ‘풍속개량의 건’, ‘부내 사설도서관 설치의 건’, ‘지회관 건축의 건’, ‘미신타파 및 결혼 허례 폐지의 건’의 4개에, 건의안은 ‘본부회관 건축의 건’과 ‘회보 발행의 건’만 포함된 형태로 축소되었다.<sup>52)</sup>

## 2) 신간회 경서지회와 지역문제에 대한 대응

### (1) 마포선 전차요금통일운동

전차요금통일은 경서지회 설립대회와 정기대회에서 모두 안건으로 제시된 것이었다. 전차요금통일문제는 경성부 안으로 통근을 해야 하는 주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문제였다.<sup>53)</sup> 전차요금통일문제는 경성전기주식회사를 압박해야 하는 사안이었지만, 전차는 도시의 기반시설로 도시주민의 생활조건이었

49) 한상구, 『일제시기 지역주민의 집합행동과 ‘공공성’』, 『역사문제연구』 31, 역사문제연구소, 2014.

50) 『京龍高秘 第6286號, 新幹會京西支會定期總會準備ニ關スル件』, 1928.12.13., 『思想問題에 關한 調査書類』 5.

51) 이윤갑, 『일제하 경상북도 지역의 신간회 지회운동』, 『동방학지』 12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4, 275~277쪽.

52) 『京龍高秘 第207號, 新幹會京西支會臨時大會開催ニ關スル件』, 1929.1.29., 『思想問題에 關한 調査書類』 6; 『朝鮮日報』, 1929년 1월 25일, 『新幹京西大會』; 『東亞日報』, 1929년 1월 24일, 『新幹京西支會 臨時大會議案』.

53) 경성의 전차노선의 확대와 도심 생활권의 확장을 연결하여 설명한 글로는 다음을 참조. 최인영, 『일제시기 경성의 도시공간을 통해 본 전차노선의 변화』, 『서울학연구』 41, 서울역사편찬원, 2010.

기 때문에 경성부와도 연관이 있었다. 문제는 마포선을 이용하는 구용산-서강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 경성부나 경성전기주식회사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신간회 경서지회는 구용산-서강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일상에서 중요한 문제인 전차요금통일문제에 개입하고자 했다.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차요금을 경성부 교외에 구간별로 부과하면서 교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불만이 높았다. 처음에는 1구역에 3원을 내는 구조였지만, 1919년 요금 제도를 바꾸면서 동대문과 남대문을 경계로 시내선과 교외선을 구분하고, 교외선으로 환승할 경우 요금을 추가로 받았다. 이에 대해 추가 요금을 내야 했던 신용산에 사는 일본인들의 반발이 커지자 신용산 지역에 대한 구역제는 폐지되었지만, 행정구역으로는 같은 용산이지만 구용산의 조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마포선에 대해서는 구역제가 유지되었다.<sup>54)</sup> 이러한 경성전기주식회사의 불합리한 차별적 대응은 전차요금통일문제가 개인의 경제적 문제인 동시에 지역적 차별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마포선 전차요금 문제는 구용산-서강을 생활권으로 하는 주민들의 일상을 개선하는 문제인 동시에, 조선인에 대한 차별적 구조와 결부되어 있었다.

신간회 경서지회는 7월 20일 간사회를 열고 전차구역통일운동의 촉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경서지회가 이 운동의 주체가 될지, 아니면 민중들을 후원할지 등 운동의 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장기간에 걸쳐 해결해야 할 문제였기 때문에 경서지회에서는 이 문제를 충분히 조사하고 연구하기 위해 강준표, 박유철(朴唯哲), 은재기, 정호석, 최석주(崔錫柱)를 조사연구위원으로 위촉했다.<sup>55)</sup> 8월 8일에는 전차요금 통일을 위한 조사결과를 관련 사회단체 대표들에게 공개하고, 이후 운동 방침에 대해 협의했다. 주민대회를 개최하기 전에 관계주민대회준비회를 조직하기로 결정했다.<sup>56)</sup> 경서지회는 이 주민대회 준비에 만전을 다하기 위해 경서지회 대표위원을 파견했다.<sup>57)</sup>

54) 김제정, 「일제 식민시기 경성부 교외 지역의 전차 문제와 지역 운동」, 『서울학연구』 29, 서울역사편찬원, 2007, 255~258쪽.

55) 「京龍高秘 제2601호, 新幹會京西支會定期幹事會開催ノ件」, 1928.7.21, 『思想問題에 關한 調査書類』 4.

56) 『東亞日報』, 1928년 8월 13일, 「시의전차의 임금통일운동」.

57) 「京龍高秘 제3052호, 新幹會京西支會幹事會開催ノ件」, 1928.8.11., 『思想問題에 關한 調査書類』 4.

경찰의 간섭으로 일정이 연기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8월 16일 마포 청년회관에서 12개 동리의 주민 대표자와 준비위원 백여 명이 모여서 관계 주민대회가 열렸다. 관계주민대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차임금 통일기성회를 조직하고, 한 동리 당 두 사람씩 총 24명의 집행위원을 선출했다. 지역주민들은 시내외를 1구역으로 통일할 것, 시간을 줄이기 위해 복선화를 할 것, 전차망을 늘릴 것, 공장노동자에게 할인된 승차를 허가할 것, 종점 및 기점에 대기소를 설치할 것, 겨울에 전차 내에 방한도구를 배치할 것 등을 요구했다.<sup>58)</sup>

이처럼 신간회 경서지회가 전차임금통일운동을 제창하고 이 운동을 앞에서 이끌었지만, 지역정치의 주체로 주민들을 대표하는 일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주민들은 경서지회와 같은 사회운동단체와 함께하는 것을 주저했고, 일부 유산자 및 지식계급 인물들은 마포 연선의 주민생활을 향상시키자는 의도에는 동의함에도 경서지회와 함께 운동할 의사가 없다는 태도를 취했다. 결국, 경서지회 간부들은 모임에서 사퇴했고, 단체에 가입한 적 없는 일반주민 중 중추인물들이 이 문제를 계속 진행하게 되었다.<sup>59)</sup>

주민들의 생활상 이익에 근거하여 주민들의 동의지반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신간회 경서지회가 지역정치의 주체로 활동하는 것은 식민지 현실에서 쉽지 않은 일이었다. 주민들이 운동의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면서도 사회단체와 함께하기를 주저했던 것은 식민지의 권력이 일상 공간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일부 유산자나 지식계급의 태도는 조선인 사회 내부의 계급적 대립으로 볼 수 있겠지만, 사회단체에 대한 주민들의 거부감은 식민지 당국의 시선을 의식한 결과일 것이다. 따라서 신간회 경서지회의 지역정치는 주민들이 정치적 주체로 자각하는 것을 경계하는 식민지 당국의 시선으로부터 지역주민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과정이 되어야 했다. 이것이 당면이익을 위한 개량적 활동이 가진 함의일 것이다.

58) 『東亞日報』, 1928년 9월 18일, 『市外各洞協同 連絡運動開始』; 『京龍高秘 제3094호, 電車賃金統一運動住民代表者會開催ニ関スル件』, 1928.9.17, 『思想問題에 관한 調査書類』 4.

59) 『京龍高秘 제4910호, 東亞日報京西支局卜朝鮮日報高陽支局ノ暗闘ニ関スル件』, 1928.10.10, 『思想問題에 관한 調査書類』 5.

## (2) 분노탱크 철폐운동

1928년 7월에 마포와 용강 일대에 악취 문제가 제기되었다. 마포에 설치한 분노탱크에서 분노가 몰래 한강으로 배출되면서 이 일대가 악취 및 식수 문제에 시달렸다.

이 문제는 경성부가 매년 약 43만여 석이나 되는 분노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를 경성비료주식회사에 전담시키면서 생긴 일이었다. 경성부는 청부인을 두어 관리하던 방식에서 분노에 대한 전매권을 경성비료에 주는 방식으로 분노처리 방법을 전환했다. 경성부 분노를 전매하게 된 경성비료는 경성부 위생과에서 근무하던 월천도길(越川島吉) 등이 주주로 만든 회사였다. 분노를 전매하게 되면 비료값이 앙등할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그대로 진행되었다.<sup>60)</sup> 경성부는 이와 동시에 이현에서 마포까지 분노 유송 장치를 설치하여 경성의 분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sup>61)</sup>

그렇지만 1928년 마포의 분노 탱크에서 밤에 몰래 분노를 방출해서 인근 주민들이 악취와 함께 식수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특히 수도가 연결되지 않은 시외의 동막, 토정리, 현석리, 서강 방면은 한강에서 식수를 길어 사용하였는데, 악취 때문에 식수를 구하지 못했다. 분노 방출에 대해 경성부와 경성비료 양측은 책임을 미루는 등 해결이 어려웠다. 주민들이 요구한 근본적 해결책은 수도 부설이었다.<sup>62)</sup> 악취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안정적인 식수 확보를 위한 수도 건설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경성부는 마포에 분노 저장고를 건설한 대가로 마포까지 수도를 부설했지만, 용강면의 다른 지역은 해당하지 않았다.<sup>63)</sup>

60) 『東亞日報』, 1927년 1월 15일, 『糞價騰貴』; 『朝鮮日報』, 1927년 1월 15일, 『新主人맞난京城糞尿隣接郡農場을威脅』.

61) 『朝鮮日報』, 1927년 8월 14일, 『京城府民의 糞尿問題遂解決』.

62) 『東亞日報』, 1927년 7월 15일, 『飲料水難에우는 漢江沿岸數萬住民』; 『東亞日報』, 1927년 7월 20일, 『糞尿 탱크로 沿岸住民困境』; 『東亞日報』, 1928년 7월 24일, 『府廳은責任回避 會社는汚物暗流』; 『東亞日報』, 1927년 7월 25일, 『汚物은넘치는데 販賣路는依然漠然』; 『東亞日報』, 1928년 7월 26일, 『西江民의 飲料水問題』; 『東亞日報』, 1928년 7월 26일, 『會社側을 充分히 團束』.

63) 1927년 4월에 경성부윤 우마노 세이이치(馬野精一)는 경성형무소 부근부터 마포까지 수관을 부설할 계획임을 언급하였고, 이어서 오물처리장 이전과 아현리 고지대에서 마포에 이르는 오물 유송장치 시설의 완공이 9월임을 밝혔다.(『일제강점기 경성부윤 자료집』, 서울역사편찬원, 2020, 105~

이 문제 해결을 위해 1928년 7월 25일 동막에 위치한 동우청년회에서는 지역 유지들이 모여 주민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주민대회를 통해 주민들의 뜻을 모아 경성부에 항의 및 수도 부설을 요구할 계획이었다. 그렇지만 용산경찰서의 개입으로 주민대회를 열지 못했고, 주민대회보다 영향력이 낮은 마포분노탱크철폐기성회를 조직할 수밖에 없었다.<sup>64)</sup>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신간회 경서지회는 이 문제를 지역 차원의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정기대회에서 안전에 포함시켰다. 분노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서지회는 전차임금통일운동과 달리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다만,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간부들이 참여하는 형태였다.

구체적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분노 처리 문제도 경성을 둘러싼 도시공간의 차별적 배치와 관련된 것이었다. 분노 처리 문제에 대한 경성부의 태도는 도심의 분노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시외 지역으로 옮기는 것에 집중되었다.<sup>65)</sup> 즉 도심의 환경을 위협하는 시설물을 교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도심의 환경과 위생을 향상시키는 대가로 시외 지역을 희생시키는 방식이었다. 구용산-서강 지역이 경성의 분노를 처리하는 지역이 된 것 자체가 도시공간의 위계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 위계는 식민지 상황에서 민족별 거주지 분리와 연동될 수밖에 없었다. 분노 처리 문제가 정기대회 안전으로 제기된 것은 이처럼 지역의 환경 및 위생 문제에 민족적 차별이 중첩된 사안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경성형무소 및 연와공장의 위치 문제도 정기대회 의안으로 제출되었다. 용강면은 연와공장이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연와공장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경성형무소의 노역장으로 사용되는 연와공장의 이전을 요구한 것이었다. 지역 내에 기피시설을 두고 싶지 않은 것으로 지역 이기주의로 볼 수도 있겠지만, 분노 처리 시설과 마찬가지로 이런 시설의 배

106쪽) 수도 부설과 오물처리 관련 시설을 마포로 보내는 것은 시기적으로 독립사건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64) 『東亞日報』, 1927년 7월 27일, 『住民大會는 28日開催』; 『東亞日報』, 1927년 7월 29일, 『住民大會를 警察이 禁止』; 『東亞日報』, 1927년 8월 1일, 『關係兩洞民 捺印으로陳情』.

65) 앞의 책(2020), 123쪽.

치 자체가 도시의 기피시설물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둘러싼 권력의 문제이다. 결국 경성형무소와 노역장 이전에 대한 요구는 도시공간의 차별적 배치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서지회는 경성과의 관계에서 구용산-서강 지역이 받는 지역적 차별 문제를 자신들의 의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 (3) 관할 지역의 교육사업

신간회 경서지회는 지역의 교육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지역의 경우 빈곤한 계층이 주로 몰려 있었기 때문에 아동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이런 점 때문에 무산아동의 교육에 많은 관심을 쏟았다.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고, 청년회에서도 이전부터 적극적으로 진행하던 활동이었다.

신간회 경서지회는 관할 지역의 교육기관에 대해서 직접 조사를 진행했다. [표5]는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5] 신간회 경서지회 관할 무산아동교육기관

사립강습소명	소재지	무산아동수		강사수
		남자	여자	
龍寅講習所	岩根町	70	10	7
西江無産兒童夜學堂	西江	60	37	5
日新夜學部	玄石里	45	13	10
私立 東明講習所	塩里	100	-	4
私立 權昌學院	新水鐵里	65	-	3
北明學院	蓬萊町	20	-	3
합계	6개소	360	60	32

\* 출처 : 『京龍高秘 第3115號, 新幹會京西支會ノ動靜ニ関スル件』, 1928.10.31., 『思想問題에 關한 調査書類』 5.

신간회 경서지회의 조사에 따르면, 1928년 하반기 기준으로 구용산-서강 지역에 존재하는 무산아동교육기관은 6개가 있었다. 용인강습소와 북명학원

은 경성부 내에 있는 학교였고, 나머지 서강무산아동야학당, 일신야학부, 동명강습소, 근창학원은 고양군 용강면에 위치했다. 이 6개의 학교에서 무산아동 420명(남학생 360명, 여학생 60명)이 교육을 받고 있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32명이었다.

그중에서 일신야학부는 1927년 3월 30일에 일신청년회에서, 근창학원은 1926년 3월 3일에 의용청년회에서, 용인강습소는 1926년 4월 15일에 용인청년회에서, 서강무산아동야학당은 1926년 4월 8일에 서강청년회에서 운영하고 있었다.<sup>66)</sup> 6개의 교육기관 중 4개소가 경서지회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청년회에서 운영하는 것이었다. 경서지회가 관할 지역의 무산아동 교육에 관심을 쏟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신간회 경서지회는 관할 구역에 산재한 민간교육자를 초대하여 위안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sup>67)</sup> 더구나 설립 1주년을 맞아서는 관할 구역을 중심으로 민간교육에 공로가 큰 사람 34명을 선발하여 표창식을 거행하고자 했다.<sup>68)</sup> 그렇지만 준비했던 교육공로자 표창식은 경찰 당국의 금지로 진행하지 못했다.<sup>69)</sup>

그리고 교육에 대한 조사 이외에도, 경서지회는 사회운동에 참고가 될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했다. 특히 경제, 정치, 교육, 교통, 위생 등 중요한 주제에 대한 통계표를 작성하기 위해 조선총독부나 경성부의 통계를 모으기 위해 노력했고, 이런 활동은 당국의 우려를 사기도 했다.<sup>70)</sup> 구체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이었다. 정기대회 건의안에 전민중생활통계표 작성이 포함된 것도 이런 활동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

66) 『東亞日報』, 1929년 1월 12일, 「十年一覽, 高陽郡」.

67) 『東亞日報』, 1928년 8월 25일, 「沿江教育者 慰安會開催」.

68) 『朝鮮日報』, 1929년 3월 20일, 「民間教育功勞 表彰式」.

69) 『東亞日報』, 1929년 3월 26일, 「教育功勞者表彰을 當局이 突然禁止」.

70) 『京龍高秘 第5041號, 新幹會京西支會ノ動靜ニ関スル件』, 1928.10.19., 『思想問題에 關한 調査書類』

## 5. 맺음말

신간회 경서지회의 범위는 행정구역처럼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다. 오히려 행정구역의 경계가 관할 지역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그렇지만 신간회 경서지회의 관할 구역은 행정구역의 구분과 무관하게 하나의 지역적 정체성을 가진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었다. 원래 경성부에 포함되었다는 역사적 경험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점차 도시화가 진행되며 인구가 집중되는 경성부 시외 지역이라는 특징을 공유하고 있었다. 더구나 이 지역의 사회단체들은 함께 활동했던 공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신간회 경서지회의 성립은 이러한 지역적 공동성에 근거한 생활권의 형성과 관련된 것이었다.

지역적 근거가 명확했던 신간회 경서지회는 사회 기반 시설과 관련한 지역적 문제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경서지회는 전국적 차원의 문제와 지회 차원의 해야 할 일을 구분했다. 이를 통해 식민지 민중들이 마주친 일상의 문제에 개입했다. 지역 차원의 문제는 식민지 민중들의 ‘당면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이었다. 이런 의제들은 도시공간의 차별적 배치와 관련이 있었다. 도시에 둘 수 없는 시설물이 시외로 배치되거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물이 제공되지 않았다. 식민지 당국은 자신들의 책임을 방기(放棄)했고, 이처럼 식민지 당국이 무시하거나 무관심한 것들을 사회적 의제로 부각해서 쟁점화하는 것이 신간회 경서지회의 역할이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이 논문은 첫째, 일제강점기 운동사 연구의 시야를 확장시킬 수 있었다. 청년회나 신간회 연구가 조직 구성의 변화나 주체의 경력을 해명하는 데에 머물지 않고, 지역의 공간적 특성과 사회운동이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둘째, 합법운동의 측면에서 신간회 지회 활동을 새롭게 평가할 수 있었다. 식민지 민중의 일상을 통해 지역정치에 개입하는 방식은 신간회의 당면이익 투쟁, 즉 합법운동의 특징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경성이라는 도시의 중심지와 그 배후지의 관계를 사회운동의 맥락에서 검토할 수 있었다. 도시는 사회구조의 공간적 표현이라고 할 때 경서지회의 구룡산-서강 지역은 경성부와 사회적·경제적 격차가 유



지되는 공간일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격차는 민족적 차별과 중첩되었다.

결론적으로 경서지회가 근거한 구용산부터 서강 사이에 구성된 생활권은 도심이나 일본인 거주지와 구별되는 공간으로, 민족적 차별과 사회적 격차가 교차하는 공간이었다. 경서지회는 계급적·민족적 모순들이 만든 식민지 민중의 일상 공간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지역정치의 주체로 참여하였다.

■ 참고문헌

『東亞日報』

『朝鮮日報』

『국역 경성도시계획조사서』, 서울역사편찬원, 2016.

『서울도시계획사』 1, 서울역사편찬원, 2021.

『서울統計資料集 - 日帝強占期篇』, 서울특별시, 1993.

『일제강점기 경성부윤 자료집』, 서울역사편찬원, 2020.

강만길·성대경 엮음,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창작과비평사, 1996.

『한국근대전지역사지도』(<http://waks.aks.ac.kr/rsh/?rshID=AKS-2011-EBZ-3105>)

Perry-Castañeda Library Map Collection,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https://maps.lib.utexas.edu/maps/korea.html>)

국사편찬위원회, 삼일운동데이터베이스(<https://db.history.go.kr/samil/>)

이균영, 『신간회 연구』, 역사비평사, 1993.

김명섭, 『일제의 남한산성 침탈과 주민들의 저항 사례연구』, 『동양학』 59,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15.

김영근, 『일제하 경성 지역의 사회공간구조의 변화와 도시경험: 중심-주변의 지역분화를 중심으로』, 『서울학 연구』 20,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3.

김영진, 『초창기 신간회 경성지회 주도세력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7.

\_\_\_\_\_, 『신간회 경성지회 주도세력과 ‘비타협’ 논쟁』, 『서울과역사』 78, 서울역사편찬원, 2011.

\_\_\_\_\_, 『정우회선언의 방법과 내용』, 『사람』 58, 수선사학회, 2016.

김제정, 『일제 식민시기 경성부 교외 지역의 전차 문제와 지역 운동』, 『서울학연구』 29,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7.

박종린, 『1920년대 ‘통일’조선공산당의 결성과정』, 『한국사연구』 102, 한국사연구회, 1998.

박준형, 『용산 지역 일본인 사회의 형성과 변천(1882~1945)』, 『서울과역사』 98, 서울역사편찬원, 2018.

심상훈, 『일제강점기 민족협동전선운동과 신간회 지회 운동 - 1920년대 경북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 『동아 인문학』 57, 동아인문학회, 2021.

안건호·박혜란, 『1920년대 중후반 청년운동과 조선청년총동맹』, 『한국근현대청년운동사』, 풀빛, 1995.

양지혜, 『일제하 개발의 충격과 농촌사회의 재판』, 『역사연구』 40, 역사학연구소, 2021.

염복규, 『일제하 도시지역정치의 구도와 양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7,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1.

\_\_\_\_\_, 『1920년대 말 ‘신도시’ 신의주의 차지인운동과 지역사회』, 『역사문화연구』 76, 한국외국어대학 역사문화연구소, 2020.

윤덕영, 『신간회 창립과 합법적 정치운동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0.

윤희정, 『신간회 지회 연구의 성과와 과제』, 『역사문제연구』 18, 역사문제연구소, 2007.

\_\_\_\_\_, 『신간회 운동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7.

\_\_\_\_\_, 『신간회 순천지회 연구』, 『호남학』 70,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21.

- \_\_\_\_\_, 『신간회의 ‘민족동원’ 운동과 식민지 체제의 균열적 성격』, 『한국학연구』 64,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2.
- 이기훈, 『1920년대 전남지방의 청년단체와 청년운동 - 사회정치적 공간의 구성과 변화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26, 역사문제연구소, 2011.
- 이윤갑, 『일제하 경상북도 지역의 신간회 지회운동』, 『동방학지』 12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4.
- 이준식, 『일제강점기 경성부의 공간구조 변화와 인구변동 - 1925~1935년의 민족별 거주지분리를 중심으로 -』, 『서울과역사』 69, 서울역사편찬원, 2007.
- 임경석, 『1927년 조선공산당의 분열과 그 성격』, 『사림』 61, 수선사학회, 2017.
- 조성운, 『일제하 수원지역의 신간회운동』, 『역사와실학』 15 · 16, 실학사상연구, 2000.
- \_\_\_\_\_, 『일제하 광주지역의 신간회운동』, 『사학연구』 100, 한국사학회, 2010.
- 최보민, 『1920년대 개성의 사회운동과 비밀결사 개성공산당 - 사회운동과 지역성의 관계를 중심으로』, 『역사연구』 37, 역사학연구소, 2019.
- 최인영, 『일제시기 경성의 도시공간을 통해 본 전차노선의 변화』, 『서울학연구』 41,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10.
- 한규무, 『일제강점기 나주협동상회의 설립과 운영』, 『역사학연구』 84, 호남사학회, 2021.
- 한상구, 『1926~28년 사회주의 세력의 운동론과 신간회』, 『한국사론』 32,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1994.
- \_\_\_\_\_, 『일제시기 지역주민의 집합행동과 ‘공공성’』, 『역사문제연구』 31, 역사문제연구소, 2014.
- 허증, 『일제강점기 금산지역 청년운동의 양상과 성격』, 『역사외담론』 103, 호서사학회, 2022.

# The Gyeongseo Branch and Local Politics of Singanhoe

Kim, Youngjin\*

This article elucidates how social activism was connected to urban space and society through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Gyeongseo Branch of Shinganhoe. Previous discourses have focused on whether social activism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rejected or accepted colonial authority. This article, however, aims to analyze social movements in colonial Korea outside of the existing binary approach. The geographical area of the Gyeongseo Branch, which stretched from Yongsan to Seogang, was different from the downtown area of Seoul and the Japanese settlement area. Ethnic discrimination and a socioeconomic gap intersected within the Gyeongseo area. The Gyeongseo Branch made colonial contradictions visible by raising questions on local issues that had been disregarded by th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This was the ways in which the Gyeongseo Branch became a significant player in local politics and was able to extend its influence over the local colonial subjects.

**Key words:** Singanhoe, Gyeongseo Branch, local politics, reformism,  
immediate interest, Yonggang–Myeon, Yongsan, Mapo, Seogang

논문투고일: 2022년 10월 23일 || 심사완료일: 2022년 11월 15일 || 게재확정일: 2022년 11월 23일

---

\* Research professor, Sungkyunkwan University